

2015
세계시예
전북비엔날레



www.biennale.or.kr

한국의 서예가 세계를 향해 비상해 나가는 한마당 잔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와 예술의 고장 전라북도에서「201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창암 이삼만 선생, 석전 황옥 선생, 강암 송성용 선생 등 내로라하는 서예가를 배출한 서예의 중심지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통해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자산이 무한한 가능성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오늘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서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의 문화자산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문화인 서예의 바람을 일으켜 전 세계와 소통하며 서예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시점입니다.

올해로 열 번째 맞이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세계서예가 하나로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작가와 관람객의 소통을 추구하며,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을 통해 서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의 서예가 세계를 향해 비상해 나가는 한마당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작가의 혼과 열정을 담은 서예 작품과 더불어 서예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7.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A Festival Where Korean Calligraphy Leaps over the World

A Festival Where Korean Calligraphy Leaps over the World

I am so pleased that the 2015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is to be held in Jeollabuk-do, the Korean representative province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Jeollabuk-do is the heartland of calligraphy, having produced superb calligraphy artists including Changam (Lee Samman), Seokjeon (Hwang Wook), and Gangam (Song Seongyong), and has continued its brilliant history and tradition through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Today, as cultural resources are evaluated to have limitless possibilities and high additional values, it is highly beneficial to preserve and pass down the long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in order to intensify the competitive ability of a country as well as an individual,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residents' lives.

In particular, Jeollabuk-do has always had an abundant amount of cultural resources based on our own traditional culture, and calligraphy is one of our unique cultural assets representing our region.

Therefore, it is high time we should bring a new sensation of calligraphy, a unique aspect of east-Asian culture,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and perform a variety of endeavors to take a leading role to develop calligraphy art.

This year's World Calligraphy Biennale sees its 10th anniversary, and it will be a meaningful festive place where world calligraphy can get together to become one, while artists and the audienc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urther, calligraphy will make a breakthrough through merging and converging with various other genres.

In the festival where we try to improve the quality of calligraphy and strive for Korean calligraphy to become known throughout the world, the main characters are you, the visitors.

I hope visitors to the 10th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will have a great time in enjoying not only the artists' passionate and soulful calligraphy works, but also their changes and new trials in person.

Thank you.

October 17, 2015
Song Ha-jin
Governor of Jeollabuk-do

인사말

물질에서 정신으로

-서예가 '인문학시대'를 선도하기를 기대하며-

전북을 예향이라고 부릅니다. 시가 있고 그림이 있고 판소리가 있고 서예가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서·화는 본래 一律이라고 하였고 판소리는 장편의 가사문학이므로 전북이 자랑하는 예술 모두는 예술임과 동시에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예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문화예술의 精髓로서 인문학적 수양이 없이는 그 격을 높일 수 없는 예술입니다. 예향이자 인문학의 고장인 전북에서 세계의 서예가들이 모여 서예의 향연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열게 된 것은 참으로 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무주의 설원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기념하는 문화행사로 첫 발을 내딛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지난 22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발전하여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서예행사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념비적인 제10회 행사를 5개 부문 28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예가 나서서 21세기 인문학의 시대를 선도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전국 각지, 세계 각국에서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전라북도과 전라북도의회 및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10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 10. 17.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 허진규

From Material to Spirit

-Hoping calligraphy can lead 'the period of humanities'-

Jeollabuk-do is called the province of arts, as there are poems, paintings, Pansori, and calligraphy in this region. As, originally, poems, calligraphy, and paintings were one, and Pansori is a lengthy gasa literary genre, the arts of Jeollabuk-do are proud of belonging to humanities as they all contain profound philosophy as well as arts themselves.

Especially, calligraphy is the essential part of cultural arts of the east-Asian Chinese culture range, so only strict humanitarian self training can raise its artistic values. I think we are all blessed as we hold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the feast of calligraphy, here in Jeollabuk-do, the center of arts and humanities, every other year. Since it took its first step as a cultural event to commemorate the 1997 Winter Universiade Muju,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has developed and grown to be one of the top international calligraphy festivals with the largest scale and greatest authority over the last 22 years.

This year, we have prepared 28 programs divided into five sections for the monumental 10th anniversary. We hope calligraphy can play a role to lead the era of humanities. We truly appreciate the calligraphy artists in Korea and from all over the world who submitted their great works for our festival.

Further,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Jeollabuk-do Government and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and all the related institutes for their generous support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Thank you again to the artists who submitted their great works, and thank you to the staff member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10th World Calligraphy Biennale, and lastly I wish you good luck.

October, 17, 2015

Heo Jingyu

Chai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전통과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전라북도에서 국제적인 서예 축제인 '201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예는 우리 민족의 멋과 기품이 담긴 예술적 조형언어이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렇기에 전라북도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통해 서예의 전통을 건강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일찍이 전북은 예향으로서, 격조 높은 순수예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서예, 소리, 맛으로 대표되는 전북의 문화 저력은 문화와 전통예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전북도민 여러분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며 근현대 서예사의 획을 긋는 서예문화축제로 성장해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우리 전통문화인 서예의 근간을 굳건히 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로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201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는 '물질에서 정신으로'라는 주제 아래 전시와 학술대회,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서예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인문정신을 함양함으로써 현 인류를 물질만능으로부터 회복시키고, 물질을 넘어 정신을 지향하는 데에 일조할 것임을 이번 행사를 통해 느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서예를 포함한 예술문화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참여하신 국내외 작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10. 1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중 덕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One of the Best Festivals of Culture and Arts

I'd like to send a special congratulatory message to the 10th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 2015, an international calligraphy festival held in Jeollabuk-do, where the fragrance of tradition and culture is vivid.

Calligraphy is an artistically formative language containing Korean aroma and elegance, and one of the precious cultural resources to be boasted of throughout the world. Thus, it is meaningful and boastful that Jeollabuk-do has upheld the tradition of calligraphy with great vigor through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From the beginning, Jeollabuk-do has always been known as the province of arts, where people have developed refined pure arts. In particular, the cultural power of Jeollabuk-do from calligraphy, sori, and food are the pride of the citizens who are deeply interested in and affectionate of their own culture and traditional arts.

With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alligraphy Biennale, which has grown to be the momentous calligraphy culture festival of modern and contemporary calligraphy history, I hope that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will grow and develop itself as one of the leading Korean festivals, securing the base of calligraphy, our traditional culture, solidly.

In the 2015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various programs will be held including exhibitions, an academic convention, and experience programs with the theme of "From Material to Spirit". I hope visitors will understand the truth through this festival, that calligraphy helps contemporary people to recover from mammonism, sprucing up their bodies and minds to be humanistic and head into a spiritual realm rather than a material on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orking with the governmental slogan "cultural enrichment", will pay continuous interest in and actively support the development and revival of culture and arts, including calligraphy.

Lastly, I'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those who submit their works to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and those who have not spared their strength for the successful Biennale, and special thanks to Jeollabuk-do citizens for their deep interest and unsparing support.

October 17, 2015

Kim Jong-deok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축하하러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예축제인「201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목표로 지난 18년간 이어 올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행사는 전 세계의 서예작품과 문인화, 서예공예품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서 도민들에게는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의미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비의 가까이에서 한평생을 함께할 붓으로 문방사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붓, 먹, 벼루, 종이가 서로 다정하게 이마를 맞대고 있는데 책을 읽지 않고서야 어찌 그 글을 잘하며 글을 잘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를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붓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모필 끝에서 묵향과 함께 하나씩 태어나는 글씨들은 작은 풀잎, 작은 꽃잎과도 같습니다. 붓으로 쓰인 글씨에는 생명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예는 한 시대를 선도하는 높은 사상과 뛰어난 형식으로 시대정신을 왕성히 담아냄으로써 예로부터 동양예술의 씨앗이요, 꽃으로 평가 되어 왔습니다.

서예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화두로 작가의 개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심미 예술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을 넘나들면서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최대한 줄여 자기만의 개성 있는 영역을 확보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분야라고 합니다. 작가 개인은 물론이고 감상하는 이들에게 고아한 심성의 도야입니다.

2015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5개 부문 28개의 풍성한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향 전북에서 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서예의 큰 바람이 전 세계에 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7.
전라북도의회위원장 김 광 수

Congratulating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Hello, everyone!

We'd like to offer our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15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the representative calligraphy festival of Korea.

All the members of the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are fully aware that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has never spared their strength in order to globalize Korean calligraphy for the last 18 years, and thus we'd like to extend our thanks for their great sacrifice.

As this is a world class festival and we can enjoy calligraphy works, literary paintings, and calligraphy craft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in one place, this festival is a prestigious event that makes our citizens proud. Further, the meaning of this festival gains in importance year after year.

From ancient times, learned men have always thought the four precious aspects of study were their close friends to keep at their side throughout their whole life. Wise men have said that when the four friends, brush, ink, inkstand, and paper are beside them, they cannot do anything else but read books in order to excel at studying, and also without studying they cannot achieve their goals. Our ancestors wrote with brushes. Each letter written on paper resembled a small blade of grass, or a flower petal blooming at the end of the brush with the fragrance of ink. This is because letters written with brushes show us the tracks of life. Calligraphy has been assessed as the seed or the flower of the Eastern arts since long ago, as it contains the spirit of the times energetically with superb forms expressing their noble thoughts to lead their times.

Calligraphy is said to be a typically aesthetic art, which expresses the artist's personality with the topic of learning the new while reviewing the old. Therefore, calligraphy can be understood as a unique art creating freshly new values while securing its own personality range. In doing so, it absorbs merits and decreases demerits, frequently crossing the old and the present. For appreciators as well as the artists themselves, the aim of calligraphy is to cultivate an elegant mind.

We have heard that the 2015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has prepared 28 events divided into five sections. Through the festival "From Material to Spirit", we sincerely hope that the big wind arising in Jeollabuk-do, the typical arts province, will spread throughout the world. Thank you.

October 17, 2015
Kim Gwang-soo
Chair of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전시행사

Exhibitions Events

세계서예의 상생전(相生展)

Exhibition for Mutual Living of World Calligraphy(Exhibition of Solidarity)

• 주 제 : 因人成事_사람으로 일을 이루다

10회를 기념하기 위해 전북을 소재로 한 한시를 쓴 서예작품 및 문인화, 전각작품 등 전시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1~2층

• 참여작가 : 18개국 162명(한국 115, 중국 9, 대만 5, 일본 5, 기타국가 28)

- 한국 : 강덕원, 강수진, 강수호, 고 강, 고범도, 박정우, 구지희, 김계천, 김광숙, 김 구, 김다순, 김동애, 김두경, 김명숙, 김방희, 김병기, 김연익, 김영기, 김영삼, 김영실, 김응학, 김장현, 김재봉, 김종대, 김종범, 김진희, 김창동, 김춘자, 김현선, 김효순, 김희정, 남두기, 노복환, 노종석, 류재학, 민성수, 박동규, 박병옥, 박승배, 박신근, 박양재, 박영진, 박원규, 박정규, 박종희, 박태후, 백승면, 서주선, 서홍식, 손장락, 송용근, 송종관, 송현숙, 송홍범, 신동엽, 심재영, 양진니, 양택동, 여성구, 여원구, 여태명, 엄정모, 오명섭, 유수중, 윤양희, 윤점용, 이근순, 이돈홍, 이병남, 이상태, 이선경, 이옥준, 이 용, 이월희, 이은설, 이은혁, 이일구, 이종선, 이주형, 이진선, 이쾌동, 이한순, 인영선, 임재우, 임종현, 임춘식, 장세훈, 장주현, 장지훈, 전도진, 전병택, 전상모, 전윤성, 전정우, 전진원, 정대병, 정도준, 정명숙, 정문장, 정양화, 정용표, 정태희, 정현숙, 조수현, 조인화, 조현관, 진영근, 채순홍, 천갑녕, 최수일, 최은철, 허경무, 홍동의, 홍우기

- 중 국 : 範國強, 黃 惇, 劉正成, 邱振中, 孫 敏, 王東齡, 葉培貴, 張鐵林, 周俊杰

- 대 만 : 張炳煌, 陳欽忠, 簡銘山, 黃嘗銘, 杜忠誥

- 일 본 : 魚住和晃, 尾崎建治, 師村三四, 高木茂行, 上山勝紀

- 기타국가 : Angela Dagnino, Antonella Altana, Antonio Cecchi, Borgo Aldo, Claudia Tassoni, Daniela Di Perna, Nicola Piccioli, Paola Billi, Silvio Ferragina, Dabadie Christine, Ines Igelnick, Achyut Palav, Nikheel Aphale, Ivan Koryakovskiy, Alexander Belyaev, Goh Yau Kee, Khoo Seng Kong, Harrison Xin shi Tu, John S. wang, Bruno Riva, Katia Bagnoli Riva, YU CHIN-CHAI, He Jing Xian, Ou Da Wei, Fareed Abdal, Foo Yong Kong, Becky Guttin, Aissa Ikken



혼이 있는 괴서전(怪書展)

Exhibition of Soulful Weird Calligraphy

• 주 제 : 사람 이야기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기발한 분위기의 서예로 표현함으로
서 '추사(秋史)'의 괴(怪), '양주팔괴(楊州八怪)'의 괴와 같은 미학
범주를 이 시대에 창신적으로 재현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층

• 참여작가 : 한·일 39명(한국 37, 일본 2)

— 한국 : 공병일, 박노봉, 김기동, 김부식, 김선기, 김성덕, 김성태, 김영기, 김종원, 김주의,
노상동, 류기곤, 류지혁, 리홍재, 문공열, 박양준, 박원제, 변영문, 변영애, 송동욱,
송현수, 양상철, 유경식, 윤효석, 이승호, 이일권, 이종균, 전명욱, 전종구, 전종구,
정광주, 정현식, 조동권, 최돈상, 한태상, 허희태, 황석봉

— 일본 : 稲田實千穂, 劉作勝



한글서예유산 임서전

Exhibition of Replicated Hangeul Calligraphy Herit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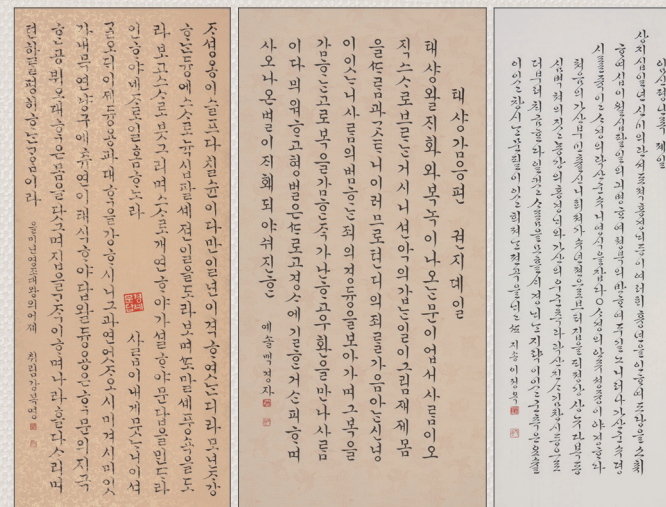
• 주 제 : 한글서예, 그 '무아지경(無我之境)'의 미학

조선 공체의 각종 범본을 임서하여 전시하고 그 안에 배인
'무아지경'의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세계에 홍보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3층

• 참여작가 : 28명

강복영, 구자송, 김명자, 김정복, 김진희, 박정숙, 박정숙,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래, 유혜선, 윤근순, 이기훈, 이성숙, 이윤정, 이정옥, 이현중,
이혜경, 이화자, 장용남, 장혜자, 조종숙, 지남래, 차부자, 최영희, 최계연,
홍영순



명사서예전

Exhibition of Celebrities'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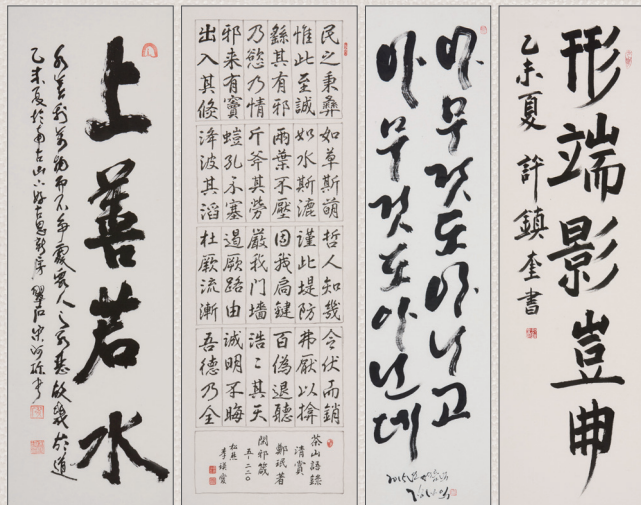
• 주 제 : 삶의 향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명사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삶의 향기와 지혜를 얻고 서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중앙전시장

• 참여작가 : 28명

강정구, 고영수, 고학찬, 광영길, 구분진, 권혁승, 김동호, 김문수, 김병중, 김창룡, 남궁진, 문희상, 박권홍, 송하진, 예춘호, 유희근, 윤국병, 이광호, 이근배, 이영애, 임철순, 장사익, 정종섭, 조창화, 주승용, 허진규, 홍석조, 홍석현



세계문자서예전

Exhibition of World Letter Calligraphy

• 주 제 : 세계문자와 서예의 교섭

세계 각 지역의 고대문자를 소재로 서예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함으로써 문자의 기원을 통찰하고 한자나 한글 서예와의 상호 소통 가능성을 탐색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3층

• 참여작가 : 25명

김명석, 김승민, 김 연, 박영도, 양성주, 양 영, 양재섭, 오민준, 유기원, 이광호, 이도영, 이동진, 이두희, 이상민, 이종암, 이준영, 이준호, 이종우, 임성균, 정재석, 진승환, 최동명, 최재석, 최진형, 한소윤



도자각서전(陶瓷刻書展)

Exhibition of Engraved Porcelains

- 주 제 : 경계를 넘어서
도자기와 전각의 만남으로 도자기에 문자를 새겨 전시함으로써
서예의 영역을 넓히고 생활 속 예술로 확산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층 전시장

• 참여작가 : 19명

김두경, 김정임, 김진희, 류재학, 박금숙, 박동규, 양상철, 양택동, 여태명,
유석기, 윤효석, 이옥준, 이종균, 임재우, 장전선, 전도진, 채순홍, 최수일,
최은철



강변의 깃발서예전

Exhibition of Calligraphy Flags at the riverside

- 주 제 : 인화연풍(人和年豐 : 사람은 화합하고 시절은 풍성하고...)
전주천변 야외의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예의 축제로서
서예작품을 다양한 색상의 깃발로 제작하여 전시

• 장 소 : 전주향교 문화관 뜰

• 참여작가 : 114명

강미자, 강웅천, 강희산, 고용삼, 곽영주, 구경숙, 권상호, 권윤희, 권정신,
권희경, 김경호, 김계하, 김광희, 김두한, 김무호, 김미란, 김미례, 김배선,
김백호, 김부경, 김삼선, 김선희, 김성환, 김영배, 김영소, 김옥순, 김옥순,
김용관, 김용귀, 김용배, 김인중, 김정남, 김정환, 김주연, 김준태, 김진돈,
김진호, 김태완, 김현희, 김홍광, 김홍자, 김효정, 노재준, 류경열, 류창순,
맹관영, 문관호, 문혜정, 박병윤, 박상찬, 박원해, 박은진, 박정만, 박정명,
박종희, 박창섭, 박춘성, 배성근, 백영란, 백종희, 서거라, 서동형, 서명덕,
서재경, 서종건, 서혜경, 손수조, 송수영, 신은숙, 엄경호, 오광석, 오신택,
유경숙, 유석영, 유숙정, 유지인, 유필상, 윤관석, 윤판기, 이돈표, 이병도,
이상문, 이성배, 이수희, 이은순, 이재병, 이정철, 이종훈, 임성근, 임종필,
장찬홍, 전영월, 전옥균, 정금정, 정도일, 정선경, 정선희, 조동래, 조창현,
조향진, 주계문, 주시돌, 채성수, 최낙희, 최명식, 최석화, 최유순, 최유진,
최재일, 한소운, 황규옥, 황선덕, 황선희, 황의성



전북서예의 “얼”전

Exhibition of the Spirit of Jeollabuk-do Calligraphy

• 주 제 : 전북을 넘어 세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북을 대표하는 서예가들의 작품세계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전북서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전북서예의 위상을 높임

• 장 소 : 전북예술회관

• 참여작가 : 46명

강수호, 고영삼, 권정신, 김계전, 김두경, 김명숙, 김배선, 김병기, 김부식, 김승방, 김 연, 김옥순, 김용배, 김재룡, 김종대, 김진돈, 김진호, 김혜걸, 김홍광, 김화래, 류창순, 박태평, 백소자, 백영란, 백종희, 서홍식, 손경신, 손현주, 송현숙, 여태명, 유석영, 유양순, 유지인, 윤점용, 이돈표, 이명순, 이승연, 이 용, 이용엽, 이은현, 임성곤, 정현숙, 조수현, 최동명, 최수일, 한소운



철필의 노래

Exhibition of Songs of Wood Calligraphy

• 주 제 : 칼끝에서 피어나는 서예

나무의 자연 미감과 서예의 예술성을 결합하여 제작한 서각작품을 대형 병풍 형식으로 전시함으로써 서예의 다양성을 추구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층 전시실

• 참여작가 : 20명

김경배, 김재길, 김정옥, 김진희, 김충기, 남광진, 박동철, 박민수, 박석균, 박재복, 박종갑, 배옥영, 신명숙, 엄광섭, 오주남, 이영백, 이혜숙, 조범제, 조승형, 최환학



시(詩)가 있는 등불서예전

Exhibition of Calligraphy Lanterns with Poems

• 주 제 : 시와 등불

한지로 만든 등에 가을 혹은 전복의 명승지를 소재로 한 시를 쓰고
불을 밝혀 천장에 거는 방식으로 전시함으로써 은은한 등불과
한지를 결합하여 서예의 영역을 확장하고 전주가 자랑하는 한지
산업의 새로운 출로를 모색

• 장 소 : 한벽루 도로 터널

• 참여작가 : 119명

강미애, 강선구, 강수남, 고현옥, 구성희, 권성하, 권용완, 김근희, 김명숙
김명숙, 김문태, 김미순, 김병옥, 김성경, 김영용, 김영선, 김월식, 김은양
(유작)
(유작)
김은희, 김인숙, 김정민, 김정설, 김정혜, 김학길, 김형술, 김형식, 김혜겸
김혜옥, 김혜정, 노금옥, 류영근, 류인숙, 문재평, 문창호, 박규민, 박세경
박숙자, 박영진, 박추하, 박홍규, 백소자, 백준선, 서상언, 서정원, 서현희
석동란, 손용현, 송태정, 송현옥, 신수일, 신은숙, 신철우, 심옥이, 안 엽
안홍표, 염정숙, 유지연, 윤재현, 윤종철, 이정자, 이광수, 이동원, 이말순
이명순, 이명희, 이민재, 이범준, 이병오, 이봉재, 이세희, 이수영, 이순금
이영순, 이예숙, 이 완, 이용봉, 이윤희, 이윤숙, 이종민, 이준형, 이홍홍
임인선, 임희숙, 장성연, 장은식, 장전선, 전한숙, 정기봉, 정영숙, 정원혜
정정석, 정지원, 정진영, 조완일, 조재영, 주은일, 지은숙, 차일수, 천광영
최다원, 최성수, 최애란, 최애순, 최영기, 최윤영, 최진빈, 한만평, 한병선
한상봉, 한상운, 함경란, 허희남, 현익주, 형계순, 홍순형, 홍학선, 홍형표
황인협, 황준현



생활서예전

Exhibition of Daily Calligraphy

• 주 제 : 생활 속으로

유명서예가의 서예 및 문인화 작품을 파티션, 롤커튼 등
생활용품으로 개발하고 설치미술의 전시법을 응용하여
전시함으로써 서예의 실용성을 탐색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중앙전시실 내



10th

학술대회 Academic Events



물질에서 정신으로 - 서예, 세계의 예술로 부상하기 위한 길 찾기

From material to Spirit

- 일 시 : 2015. 10. 18일^목, 오전 09:30~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 발표인원 : 11명(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모로코)
※ 한국서예학회, 중국문화학회, 전북대학교 BK+
한중문화'화이부동'창의 인재 양성사업단 등과 연합

• 내 용

기조발표 : 21세기, 서예의 세계 문예사적 역할

발 표 자 : 한국 김병기(전북대/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

논문1 중국의 초, 중, 고 서예교육 현황과 서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발표 : 중국 張韜 _山東 曲阜師範大學

논문2 백아터사령부의 '한자' 및 '서예'교육 금지 조치가 일본서예의 前衛化에 미친 영향

발표 : 일본 劉作勝 _愛知大

논문3 朝鮮 書藝理論의 몇 가지 특색

발표 : 한국 김남형 _계명대

논문4 서예가 어린이 인성교육 및 노인의 건강장수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대만 簡月娟 _臺南大

논문5 서양 사람들, 한자문화권의 서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발표 : 미국 Harison-Tu _美國落基山中華書法學會會長

논문6 東洋 書·畫·印 品論의 美學的 考察

발표 : 한국 조민환 _춘천교대

논문7 모로코의 Calligraphy 전통과 모로코인의 '동아시아 서예'에 대한 인식

발표 : 모로코 Sadik Haddari _모로코 국영철도"ONCF"전속작가

논문8 한글 '궁체'서예의 아름다움

발표 : 한국 박정숙 _성균관대

논문9 일본 초·중·고 서예교육의 현황과 서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발표 : 일본 魚住和晃 _神戸大

논문10 말레이시아 書藝遺跡과 현대의 서예창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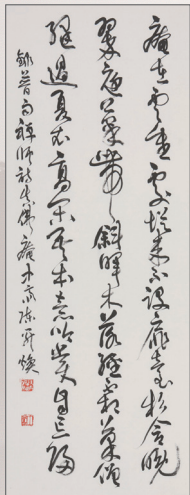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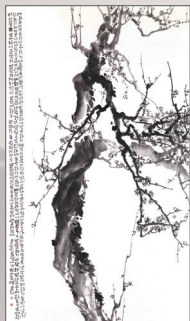
발표 : 말레이시아 符永剛 _國際現代書畫聯盟 會長

논문11 〈氣 본체론의 서예미학적 의식〉

발표 : 한국 김응학 _성균관대

상호토론 및 질의 응답 좌장 김병기 _전북대

부대행사 Incidental Events



‘13년 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Invitational Exhibition of the '13 Grand Prix Winner

2013년 기념공모전 대상 수상작가 초대전으로
대상작가의 서예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

- 전시작품 : 40점 - 이도영
- 전시장소 : 전북예술회관 제 2전시실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Invitational Exhibition of Commemoration Contest Winners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의
입상작가중 초대작가로 추대된 작가들의 서예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

- 전시작품 : 23점
- 전시장소 : 전북예술회관 제 6전시실
- 참여작가
김승민, 김태현, 남부원, 서현희, 양성주, 양재섭,
염경호, 유경숙, 윤현식, 이근정, 이도영, 이동진,
이세희, 이유헌, 임인선, 장세훈, 정정석, 조동권,
조재영, 주은일, 채순자, 최윤진, 황인엽

기념공모전

Exhibition of Commemoration Contest

2015년 비엔날레를 기념하고 신인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순수 창작공모전

- 전시작품 : 117점
- 전시장소 : 전북예술회관 제 3, 4, 5전시실



작가와의 만남

With Artists

유명서예가를 초청하여 그의 서예관, 서예학습
과정 및 창작에 관한 신념 등에 대해 듣고 토론
하는 열린 공간

- 10월 24일± 묵선 심재영(14:00~17:00)
- 11월 07일± 일강 전병택(14:00~17:00)
- 장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Enjoy Good Luck with Calligraphy

국내·외 유명서예인의 작품을 한주동안 전시
장을 찾아준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나누어 주는 행사

- 일시 : 매주 일요일 17:00(추첨)
- 장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로비



탁본체험

Rubbing Experience

유명작가의 작품을 관람객이 직접 탁본하여
소장하는 체험행사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나도 서예가

I Am a Calligraphy Artist, Too

관람객 참여의 장으로 누구나 서예를 체험해 보는 체험의 장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가훈 · 좌우명 써주기

Writing Family Precepts and Mottos for Visitors

서예가 봉사의 장으로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가훈, 또는 좌우명을 무료로 써주는 행사

• 일 시 : 매주 일요일 14:00 ~ 17:00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퍼즐서예 놀이 공간

Calligraphy Puzzles

서예놀이 공간으로 유명작품을 대형 퍼즐로 제작하여 조립하게 함으로써 서예에 대한 흥미를 유발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1층 별실



전주 한옥마을 서예로 제작한 현판 · 주련 사진전

Hanok Village and Hanging Boards

주 제 : 한옥의 향기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에 본래부터 걸려 있던 현판과 주련은 물론, 본격적으로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새롭게 제작하여 건 현판과 주련을 해상도가 높은 사진으로 전시함으로써 한옥의 매력과 향기를 느끼게 하고 전주 한옥마을의 멋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자 함.

• 전시작품 : 50여 점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1~2 층간 통로

연계행사

Associated Events



강암 송성용전

Exhibition of Song Seongyong, Gangam

평생을 유학과 한문, 서예에 정진하여 한국 서단의 최고봉에 올랐고 특히, 사군자 중심의 문인화에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전통의 고법을 현대적 조형으로 재창조함으로써 특유의 '강암체'를 창조한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의 유작 작품전

- 참여작품 : 100점
- 전시장소 : 강암서예관

석전 황욱전

Exhibition of Hwang Wook, Seokjeon

한학과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등 선비가 닦아야 할 6예를 고루 갖추고 만년에 악필법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석전 황욱 선생의 유작 작품전

- 참여작품 : 100점
- 장 소 : 국립전주박물관

완주군 서예가 초대전

Invitational Exhibition of Calligraphy Artists from Wanju-gun

서예비엔날레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완주군의 서예단체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완주군 서예인의 큰잔치

- 기 간 : 2015. 11. 7일~13일
- 전시장소 : 청운갤러리
- 참여인원 : 40명

전북지역 초·중·고등 교장단 연수회 - 서예와 인성교육

Calligraphy and Personality Education-Training for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of the Jeollabuk-do Region

- 일 시 : 2015. 10. 20일~21일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종합행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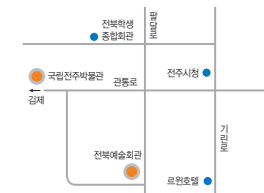
행사안내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명사서예전	중앙 전시실
	생활서예전	
	퍼즐서예 놀이공간	
	세계서예의 상생전(相生展)	1전시실
	탁본체험	2층로비
	전각체험	
	나도 서예가	
	서예가 머그컵을 만나면?	2전시실
	세계서예의 상생전(相生展)	
	흔이 있는 괴서전(怪書展)	
전북예술회관	도자각서전(陶瓷刻書展)	3전시실
	철필의 노래	
	한글서예유산 임시전	
	세계문자서예전	로비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7시 추첨	
	가훈·좌우명 써주기 - 매주 일요일 14시~17시까지	
	작가와와의 만남 - 10.24(토) 목선 삼재영 / 11.7(토) 일강 전병택	전시장내
	전주 한옥마을 서예로 제작한 현판·주련 사진전	
	학술대회 - 10월 18일 국제회의장	
	전북지역 초·중·고등 교장단 연수회 - 10월 20(화)/21(수)	국제 회의장
전주한옥마을 한벽루	전북서예의 "얼"전	전북예술회관
	2013년 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 이도영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전주향교문화관 뜰	2015년 기념공모전	
국립전주박물관	시(詩)가 있는 등불서예전	
강암서예관	강변의 깃발서예전	
청운갤러리	석전 황욱전	
	강암 송성용전	
	완주군 서예가 초대전 - 11월 7일 ~ 1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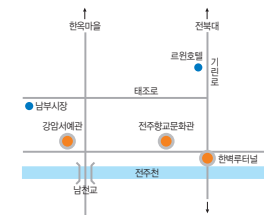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전북예술회관/국립전주박물관



● 전주향교문화관/한벽루터널/강암서예관



● 창운갤러리



● 행사장안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063. 270-8000
전북예술회관 : 063. 284-4445
국립전주박물관 : 063. 223-5651
강암서예관 : 063. 285-7442
창운갤러리 : 063. 226-1273

10th

2015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